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a National Library

윤희윤(H. Y. Yoon)** , 장덕현(D. H. Chang)***

【초 록】

국가도서관은 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장서의 개발·관리를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근거로 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모든 관종을 대표하는 국립도서관, 국내의 모든 정보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인터넷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구성체계, 구조적 및 내용적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하되 변용하였다. 결과로 서문, 장서개발의 대상, 주제, 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작·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로 구성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장서개발, 장서관리, 장서개발정책, 국가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Abstract】

A national library bears responsibility to collect, develop, manage and preserve the na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heritages. The instit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duty, should center on systematically develop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is paper, in this regard, strives to propose a model to comprise of basic principles of collection development of a national library in order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resources by the types and subjects. Major emphasis was put on the nature of a national library as a legal deposit library, an information gateway, and a repository for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As a result,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ppropriate for a national library has been proposed by analyzing cases in other countries to guide establishing principles for determining and analyzing the types and magnitude of the collection acquisition: by applying the Five-level conspectus to be optimal to collection magnitude; and, by identifying the essential elements in systematic development of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Keywords】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Management,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National Library, National Library of Korea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국가도서관은 한 나라의 지식문화 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

*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 연구(2010. 9) 보고서를 요약한 것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pro@naver.com)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chang@pusan.ac.kr) (교신저자)

를 위해서는 법적 및 실무적 근거와 지침인 장서개발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수립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의 근거조항, 범국가적 도서관정책,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자료인 중장기 비전에서 그 논거를 추출할 수 있다.

우선,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제18조 제1항에 의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제19조 업무 규정의 핵심은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즉 포괄적 의미의 장서관리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웅대한 건물, 유능한 직원, 강력한 정보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충실한 장서개발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한국의 지식세계와 정신문화를 집적한 지식문화의 보루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도서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2008년 8월 6일자로 확정·공표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에서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우선 과제는 ‘선진국 수준의 장서확충을 위한 장서개발정책의 제도화, 납본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확보, 국내외 자료수집의 강화,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수집’ 등이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장서개발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2006년에 수립한 중장기 비전인 『국립중앙도서관 2010』이다. 이 비전에서 설정된 4대 기본원칙 ‘수집자료 및 제공서비스의 하이브리드화,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의 강화와 평등화, 대중 밀착형 도서관과 독서문화의 생활화, 국가의 문화발전 및 경제성장의 동력화’ 가운데 ‘한국 지식문화 유산의 자존심과 보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국가도서관이 그러하듯이 국립중앙도서관도 당대와 후대를 위한 국가지식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면 체계적인 장서개발을 전제로 자료의 누적성, 역사성, 장기 보존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비차별적 접근(이용)성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한 이래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공식문서로서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적용한 적이 없다. 성문화된 계획문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장서개발 및 관리는 논리

적 체계성과 최적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계획기능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실무는 대중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에 국립중앙도서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도서관법』의 근거조항, 국가 도서관정책의 추진 과제, 중장기 비전의 목표에서는 모두 장서개발과 관리 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 내지 추진전략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으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구체화하면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자료, 특수범주 자료, 전자자료의 유형별 및 매체별 또는 주제별 개발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안하고 장서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세부지침(일반자료, 특수범주 자료, 주제별 장서, 전자자료,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을 제시하였다. 장서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직원이 도서관 및 장서개발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함으로써 최적의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선택과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및 부서의 편견을 최소화함으로써 균형된 집서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는 지역 대표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원용할 수 있어 관종별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외국의 국가도서관 중 북미의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¹⁾, 유럽의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²⁾, 오세아니아의 호주

1) LC Collection Development and Policies, [cited 2010.12.1]. <<http://www.loc.gov/acq/coldev/handbook.html>>.

2) B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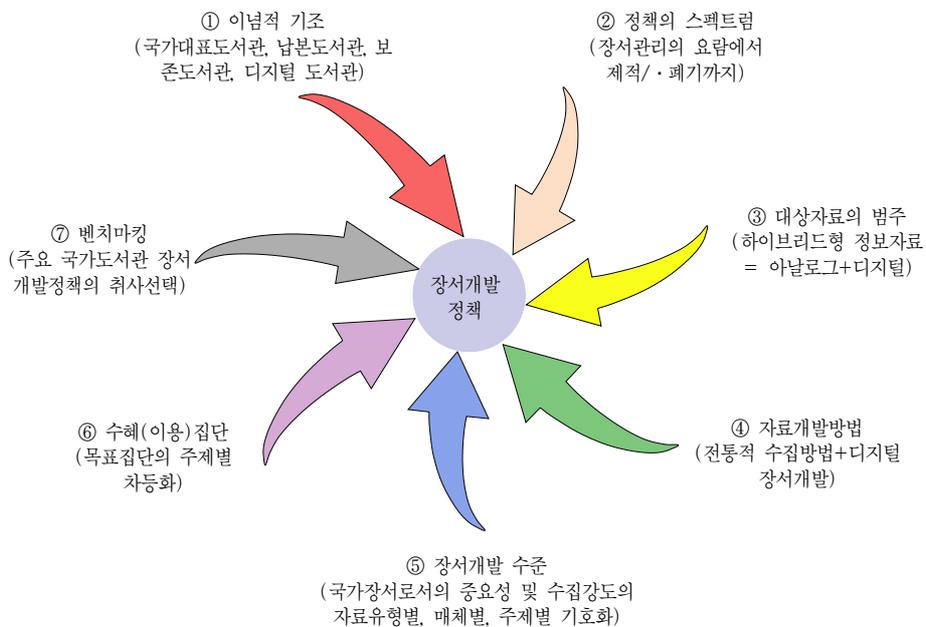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³⁾, 아시아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⁴⁾의 4개국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적 특징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유형과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선정지침, 장서확충 계획, 납본제도와 자료수집 방법, 자료유형·주제·언어별 소장현황, 연차증가량, 각종 기준과 매뉴얼, 자료구입 계획서, 근거법규 등을 최대한 수집한 후에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의 현주소와 강약점을 정밀 분석하여 장서개발 정책 수립의 배경정보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기본방향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를 최대한 수집·제공·보존하는 지식문화유산기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고품질 학술자료도 가능한 한 많이 개발·제공·보존하는 국가문헌정보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서개발정책이 요체인데, 그 기본방향은 다음의 7개 항목이다.

첫째,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이념적 기초에는 대한

민국의 모든 관중을 대표하는 국가도서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를 제출받는 납본도서관,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지식문화를 축적·전수하는 보존도서관, 그리고 인터넷 및 디지털 정보유통을 선도하는 주제계이트웨이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장서개발정책의 스펙트럼은 자료수집을 넘어 모든 정보자료의 요람(선정과 수집)에서 무덤(제작과 폐기)까지를 포괄하는, 소위 장서관리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장서개발정책의 대상은 국내외에서 생산·제작되는 인쇄매체 중심의 아날로그 자료와 전자자료 및 인터넷 정보자원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포섭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형 정보자료를 개발의 범주로 상정한다. 넷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개발 방법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수용한다. 즉, 전통적 수집방식인 납본, 구입, 수증, 교환, 기탁 등과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한 매체변환(마이크로화, 디지털화), 스캐닝, 다운로드, 그리고 영인·복제를 모두 적용한다. 다섯째, 장서개발의 수준은 자료의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중요성과 수집강도를 명시한 지표를 적용함으로써 인식도를 제고하고 실용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강도에 대한 수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수립의 기본방향

3) NL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nla.gov.au/policy/cdp/CDP.pdf>>.

4) 國立國會圖書館, 資料收集方針書(2009). [cited 2010.12.1]. <<http://www.ndl.go.jp/aboutus/pdf/housin2009.pdf>>.

준을 기호화한다. 여섯째, 장서개발정책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자료유형 및 주제에 따라 목표 이용집단을 차등화한다. 예컨대 납본방식으로 수집하는 국내자료는 모든 국민을 위한 장서개발이지만, 외국 자료의 주제별 장서개발과 디지털 회색문헌(학위논문, 각종 연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한 인터넷 장서개발은 연구자를 목표 집단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분석에서 도출된 구성체계 및 특징 중에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나 내용은 최대한 수용하되 선택적으로 변용한다.

4. 장서개발정책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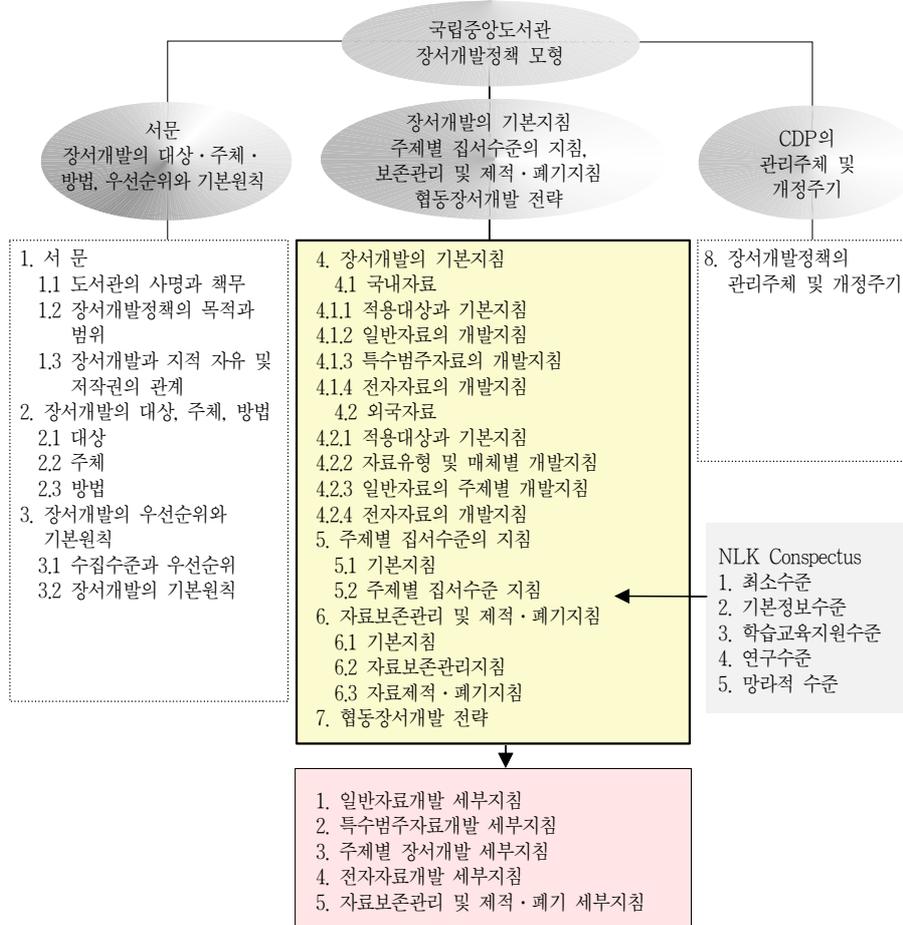
기본방향에 입각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의 바람직한 모형(안)은 <그림 2>의 기본구조처럼 총 8개

영역으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4.1 서 문

4.1.1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한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는 국가지식보고,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전국에 산재하는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와 역할은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관법』 제19조에서 규정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 모형의 기본구조

한 9가지 업무 중에서 ‘국내의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를 가장 중시하고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시대사조의 수용성, 수집자료의 융합성, 구성체계의 견고성, 현실적 적합성,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한다.

4.1.2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 목적

장서개발정책의 본질적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자료보존관, 국립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포함)의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제·언어·유형별로 선택기준을 설정하고, 미래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되고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의 부수적 목적은 국가차원의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에 대한 열정, 기본원칙과 집행기준에 의거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서관리의 의지, 그리고 장서개발 업무의 제도적 실천을 성문화한 정책문

서를 대내외에 천명하는데 있다.

○ 범위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장서개발 및 보존관리의 프레임워크로서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정책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에 적시하는 <표 1>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다.

4.1.3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도서관은 IFLA의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성명’(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과 ‘디지털도서관선언’(Manifesto for Digital Libraries),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지지하고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장서개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 도서관 장서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며 당대와 후대를 위한 세계의 지적 및 정신적 풍요와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촉진한다.
- 도서관은 한민족과 인류세계의 기억을 전승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장서개발을 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표 1>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CDP)의 범위

| | | |
|----|-----------------------|---|
| 1. | 서 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장서개발정책의 목적과 범위 • 장서개발과 지적 자유 및 저작권의 관계 |
| 2. | 장서개발의 대상, 주제,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의 대상 • 장서개발의 주체와 책임(조직부서) • 장서개발의 방법(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타) |
| 3. |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
| 4. |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일반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 외국자료: 적용대상과 기본지침,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지침, 일반자료의 주제별 개발지침, 전자자료 개발지침 |
| 5. |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WLN, LC, NDL의 컨셉티스를 원용하여 국가장서의 집서수준(현재의 장서수준, 미래의 수집의지와 수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을 5단계, 즉 최소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Research Level), 망라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으로 구분하여 주제별 장서개발에 적용함 • 주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 제시 • 도서관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제시 |
| 6. | 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침 • 자료보존관리지침 • 자료제적 및 폐기지침 |
| 7. | 협동장서개발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국가도서관 및 국내 주요 국립도서관과의 협동장서개발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타 국가수준의 국립도서관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개발 등 |
| 8. | 장서개발정책문서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주무부서) • 장서개발정책의 개정주기 |

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며, 도서관 및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 접근 및 이용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 도서관은 국민과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각종 자료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이는 인종, 사상, 종교, 성별, 나이, 직업,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된다.
- 도서관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자료를 개발하고 각종 정보서비스(대출업무, 상호대차와 문헌제공서비스, 자료복사서비스, 라이선스 접근)를 제공하며, 국가장서 보존관리에 있어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직원과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촉진한다.

4.2 장서개발의 대상, 주체, 방법

4.2.1 대상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자원’, ‘지식정보’는 호환적인 용어이며, 그 대상은 국가장서 또는 국가문헌을 개발·제공·보존하는데 유용한 아날로그 자료 및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서 지식문화유산적 가치, 교육학술적 가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자료를 말한다. 장서개발정책에서 강조하는 국가장서 또는 국가문헌은 도서관이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각종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보존하는 장서, 즉 지식세계 및 기록문화의 역사성, 누적성, 체계성, 가치성을 담보하는 대한민국의 지식문화유산에 대한 합집합적 개념과 정체성을 의미한다.

4.2.2 주체

도서관의 장서개발 및 예산에 관한 총체적 권한과 책임은 관장에게 있다. 다만 자료유형 및 사이트를 감안하여 인쇄자료 및 비도서자료는 자료관리부 자료기획과가, 연속간행물 및 정부간행물은 정책자료과가,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전자자료는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가, 어린이·청소년자료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가 장서개발을 주도하며, 기타 관련부서(주제정보과, 도서관연구소 등)가 분담 또는 협력한다. 장서개발부서의 모든 직원은 최근의 학술적 연구결과에 대한 전자적 접근에서 오래된 희귀서와 귀중서의 보존관리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국가장

서를 개발·관리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4.2.3 방법

도서관은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모든 자료의 법적 제출(납본), 국내외 자료의 구입, 수증, 국제교환, 기탁, 영인·제본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한다.

- ① 납본: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납본방식으로 수집하여 국가장서로 등록하고 영구히 보존한다. 또한 국민에게 열람·참고서비스 및 상호대차 방식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서지를 편찬하여 국내외에 홍보하는데 활용한다. 한편,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집·보존한다.
- ② 구입: 도서관은 지식문화유산의 확보와 정부 정책 수립 및 국민의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고하며,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입방식으로 국내외 자료를 수집한다. 주요 대상자료는 미소장 국내자료, 파손 등으로 인한 수선·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외국 학술자료 및 한국관련자료, 라이선스 자료 등이다.
- ③ 수증: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자료나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일반도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등)는 수증방식으로 수집한다. 다만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수증을 거절하거나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국제교환: 도서관은 각국의 주요 도서관과 국제교환을 통하여 정부간행물, 정책 및 통계자료, 학술연구기관의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자료 등을 수집하는 한편,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기탁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수집한다.
- ⑤ 기탁: 도서관은 소장하지 않거나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중에서 국내외 소재의 한국 고문헌 및 한국관련 근현대사 자

료를 영인·복제, 마이크로화, 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4.3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4.3.1 수집수준과 우선순위

도서관은 다음의 5가지 수집수준을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다만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도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정보센터로서 정보자료의 완벽한 보존기능을 전제로 당대이용의 편의성과 후대전승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국가장서를 개발할 때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정보의 부존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작권 강화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을 극대화한다.
- ②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도서관은 정보자료 중심의 국가지식문화유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한다.
- ③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도서관은 방대한 분량의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인터넷 정보유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서개발의 무게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전자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한다.
- ④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도서관이 납본,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완전하게 수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의 보충, 파오손자료의 수선·교체·매체변환, 미소장 고문헌의 영인·복제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 ⑤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 도서관은 국가수준

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자료, 고가자료, Web DB,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분담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자료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4.3.2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도서관이 국가장서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은 현재의 이용자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을 염두에 두고 장서를 개발한다.
-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망라성을 추구하되,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제, 유형, 언어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은 자료의 지식문화적 중요성, 학술연구적 가치, 잠재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장서구성의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하며, 담당자의 사상, 종교, 정치적 입장, 개인적 이해관계와 모든 이해관계를 초월한 입장에서 선택의 공정성과 공평성을 확보한다.
- 보존상 필요성과 이용·복사 등에 따른 파오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복본수를 결정한다.
- 도서관은 대중을 위한 일반적 교양자료에서부터 연구집단을 위한 전문 학술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한다. 장서구성의 체계성과 균형성을 확립하며, 이를 위하여 장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핵심자료, 주변자료, 학제적 자료 등을 고루 수집한다.
- 도서관 장서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범국가적으로 현재 및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수집·제공·보존·전수하는데 있다. 따라서 납본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 특정지역으로 한정하여 기술한 자료는 당해지역의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 도서관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발행 또는 제작된 포맷이 다르면 각각 최우량판(버전)을 수집한다. 예외로 취급해야 할 자료를 제외한 3차원 인조물은 수집하지 않는다.
- 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하되, 이를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은 더 상세한 지침과 기준을 준비하여 실무에 활용한다.
- 자료의 매체별 수명주기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인쇄매체를 우선 수집한다.

- 자료가 다양한 매체, 즉 인쇄본, 마이크로형태, CD-ROM, 파일형태(HTML, PDF 등)로 존재할 경우에는 인쇄매체, 파일, CD-ROM, 마이크로형태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수집하고, 기대(유효)수명이 짧은 자료는 온라인 DB 등의 전자매체를 적극 활용한다.

4.4 장서개발의 기본지침

4.4.1 국내자료

○ 기본방향

- 일반자료는 인쇄 및 비인쇄자료 중에서 일반도서, 참고도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기타 회색문헌(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회의자료 등), 가제식 자료, 규격과 특허, 지도자료, 사진자료, 악보 등, 마이크로자료, 시청각자료를 말한다.
- 특수범주자료는 일반자료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으나 그 속성, 제본형태, 유통경로, 이용집단, 지적수준, 기대수명 등의 측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 즉 고서·고문서·고지도 등의 고문헌, 영인·복제자료, 어린이·청소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 단명자료, 기타로 구분한다.

- 전자자료는 CD-ROM, DVD 등의 오프라인 자료, 전자책·전자잡지·Web DB 등의 온라인 자료,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로 유통되는 웹정보자원을 말한다.
 - 납본대상인 신간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의 납본규정에 근거하여 망라적으로 수집·개발하며, 납본된 자료라 할지라도 이용 및 보존용으로 복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입과 기타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영인·복제 등의 방식으로 복본을 추가로 확보한다.
 - 납본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특수범주자료는 내용적 이용가치 및 형태서지적 보존가치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구입, 수증, 영인·제작, 디지털화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 그 외에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필사, 발행, 제작된 고문헌과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비롯한 소급자료는 사료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 특수범주자료 중에서 어린이·청소년자료와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그 성격과 이용집단을 감안하고, 전자자료는 생산과 유통 비중, 이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장래에 각각 별도의 장서개발 정책을 수립한다.
- 일반자료 개발지침
- 일반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일반자료 개발지침

| 유형 | 개발 지침 |
|---------|--|
| 일반도서 | • 도서관은 납본수집을 원칙으로 일반도서를 수집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입, 수증, 교환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다만 저수준의 교재 등은 그 자료적 가치를 고려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
| 참고도서 | • 사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초록지, 도서목록 등으로서, 전자형, Web DB 등의 버전으로도 출시되는 경우 인쇄형을 우선 수집하고, 전자형 등은 보완적으로 납본이나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다. 참고도서는 납본제의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완전하게 수집하며, 특히 납본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출판된 소급자료를 원본구입, 대체본 제작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수집한다. |
| 연속간행물 | • 잡지(대중지, 학술지), 소식지, 연간보고서, 연감, 신문 등으로서,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있는 연속간행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학술지의 경우, 심사제도가 있는 인쇄형을 우선 수집하되, 온라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잡지라도 계약한다. 신문은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자료일 때는 축쇄본, 마이크로형태, 전자버전의 수집 또는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체본 위주로 수집한다. |
| 정부간행물 | • 국가와 자치단체, 준정부기관이 발간한 정책자료, 백서, 연감, 연보, 보고서, 통계집 등으로서, 중앙정부 및 준정부기관의 간행물과 자치단체 발간 자료는 모두 수집한다. 또한 자료 전체가 지방의 이해와 관련된 자료, 자치단체 이하의 행정단위(읍, 면, 동)에서 생산된 자료 가운데 법규(정관, 규정), 재무제표, 회의록, 지방세 납부자 보고서 등은 지역대표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
| 학위논문 | • 납본으로 수집하는 학위논문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체능 분야에서 원본수집을 전제로 보존의 완전성을 지향하며, 내국인이 외국대학에 제출한 외국 학위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접근 및 이용의 편의를 제공한다. |
| 기타 회색문헌 | • 연구 및 조사보고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자료집, 회의자료 등의 회색문헌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각종 보고서 등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과 협력하여 분담 수집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

| 유형 | 개발 지침 |
|--------|---|
| 가제식 자료 | • 정부가 제공되는 법령 등의 가제식 자료는 추록본이 생산되는 한 수집·가제하며, 자치법규는 가제작업을 통한 원본보존보다 인터넷 접근을 강화한다. |
| 규격과 특허 | • 규격 및 특허자료는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도서관이 수집하지 않는 자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지도자료 | • 낱장 지도, 차트, 지도책, 항공탐사 및 원격탐사 이미지 및 지도제작과 관련된 문헌, 지리정보원 등을 포함하는데, 역사적 지도자료는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개발한다. 특히 미납본된 국내 지도자료와 외국에서 생산되었거나 존재하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고지도 등은 기존 지도장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집하되 구입을 우선으로 기증요청이나 보존대행 등의 방안도 강구한다. 최신 지도자료는 아날로그 형태와 디지털 버전을 불문하고 법적 납본, 지도제작 및 유통기관의 기증요청, 구입 등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 사진자료 | • 사진자료는 원본 수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과 수증 등을 통하여 수집한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진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을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동시에 디지털화한다. |
| 악보 등 | • 국제적으로 저명한 한국출신 작곡가의 악보·습작·사적 자료, 유명한 음악출판사나 연주단체의 관련자료, 작곡가 및 연주자의 원본자료와 사본은 구입, 수증, 유증의 방식을 병행하여 수집하되, 기존장서의 연구가치를 높이는 사본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구입을 통한 수집대상에는 인쇄자료 중심의 음악장서를 보충하는데 중요한 희귀성 음악자료, 주제나 독자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 등을 포함한다. |
| 마이크로자료 | • 마이크로자료는 일반도서, 연속간행물, 신문, 시청각자료 등의 개발지침을 준용하되, 자료가 인쇄형, 마이크로형태, 전자형으로 존재할 때는 인쇄형, 전자형, 마이크로형태의 순으로 수집한다. |
| 시청각자료 | • 시각자료(슬라이드, 필름스트립, 비디오 테이프, 영화필름, 비디오 디스크, 트랜스 페어런스 등), 청각자료(음반, 카세트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CD 등), 실물 또는 모형자료(지구, 표본, 게임 등)를 포괄하나, 원본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시청각자료는 디지털 포맷을 우선 수집한다. 기존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각자료는 주기적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접근성과 보존력을 높인다. |

○ 특수범주자료 개발지침

특수범주 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특수범주자료 개발 지침

| 유형 | 개발 지침 |
|-----------|--|
| 고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자료로서,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고문서는 국왕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사찰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한다. • 고지도는 한국의 고지도,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관련 고지도, 외국 고지도로 대별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서간류는 서예(왕실, 일반 등),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별시, 하시 등), 탁본 등을 말하며, 원본수집 또는 양질의 탁본수집을 우선한다. • 서각류에는 목판각(판목, 현판 등), 금석각(비, 지석, 석각, 명문), 인장(어보, 관인, 사인 등)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귀중서는 1659년 이전의 자료로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귀중하거나 희귀할 경우 구입 또는 수증하고, 복본은 현재의 소장유무를 감안하여 수집여부를 판단한다. • 필사본은 저서·편지·일기 등의 개별자료, 단체나 조직의 일상적 활동에서 생산된 문서자료를 포함하며, 연구·심미적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문헌은 진본으로서 출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 구입하며, 기타 수증 및 장기임대 방식으로 보완한다. 또한, 연구가치가 충분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제한된 내용의 자료는 당해지역의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 마이크로화 되었거나 디지털화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선별·수집한다. |
| 영인·복제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미소장 고문헌과 납본제도 도입 이전에 간행된 지방본 현대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대상자료가 국내 타기관 및 외국기관에 소장되어 있을 경우 1910년 이전에 간행·필사된 것 또는 도서관 소장본이 영본이고 외국 소장본이 원질인 자료를 우선 개발한다. 단, 도서관 소장본이라 하더라도 판본이 다른 자료는 수증, 영인·복제 등을 통해 수집한다. |
| 어린이·청소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용으로 발간·제작된 일반자료, 참고자료, 자녀용 부모자료, 교육 및 연구용 자료는 납본수집을 근간으로 개발하되, 미납본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납본을 요청하고, 납본제 시행 이전의 자료는 구입과 수증방식을 병행한다. 어린이·청소년의 교양습득, 정서함양, 인격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독서진흥용 권장도서 및 교양도서는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원로 아동문학가가 저술한 아동문학 관련 주요 자료는 수증활동을 강화하여 장서에 편입시키거나 위탁관리를 유도한다. |

| 유형 | 개발 지침 |
|-----------|--|
| 장애인용 대체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용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큰활자도서, 전자책, 데이지, 점·목자혼용도서, 화면해설 비디오, 촉각도서 등)와 청각장애인용 자료(수화영상도서, 수화·자막삽입 영상물, 읽기 쉬운 도서)로 선별하여 개발하는데, 장애유형별 요구와 선호도, 인터넷과 디지털 정보유통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용 데이지 중심의 디지털 자료를 우선 개발·제작하고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수집한다. 또한 자료 수집, 제작에 필요한 서지정보(대체자료 제작기관 목록, 인터넷 자료와 뉴스레터, 도서관의 대체자료 서지DB 등)를 주기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이 공포된 출판물을 점자 혹은 음성으로 변환할 때는 축약본이나 일부 생략 등과 같은 변형을 지양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의 삽입, 지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녹음도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권리제한 조항을 개정·보완하는데 노력한다. |
| 단명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팸플릿, 리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초대장, 광고 전단지, 프로그램 및 카드 등으로서 과거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풍부한 최신정보를 제공할 경우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통상 국가에 관한 또는 국가와 관련된 단명자료는 중점적으로 수집하는 반면 특정 지역에 관한 단명자료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 이송하거나 지역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한다. 가치가 충분한 단명자료는 사실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 혹은 디자인이나 로고, 초상화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충분히 포함된 것이어야 하고 자체의 모양도 우수해야 한다. |
| 기타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질판 및 미출판자료, 한정판은 내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별 수집하고, 실물, 공예품 등의 입체형 실물자료(케도, 모형, 타임캡슐 등)는 다른 자료에 기술되거나 표현되지 않는 정보가 수록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한다. |

○ 전자자료 개발지침

전자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국내 전자자료 개발지침

| 유형 | 개발 지침 |
|-----------------|--|
|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ROM, DVD, VCD, 디스켓, 테이프 등의 물리적 장치에 고정시킨 패키지 계통의 디지털 콘텐츠로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형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형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현재 오프라인형으로 수집하는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
|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 전자잡지, Web DB,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사본 등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계통의 전자출판물로서 온라인 전자자료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외에도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사이트 내에서의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에 유의하고,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용서비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 인터넷(웹) 정보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책, 전자잡지, 정부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정책 및 행정문서, 통계데이터 등 웹으로 유통되는 각종 파일단위의 전자출판물로서 대표적인 서지DB, 주제별 전문지식DB, 회색문헌(보고서, 회의자료, 학위논문, 정부간행물 등), 파일단위의 학술논문(오픈 액세스 논문), 단편적인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등), 시소러스, 회귀자료와 질판자료,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 문서관, 학술출판사, DB 벤더, 상업용 DDS 기관, 학술연구기관·학(협)회·행정 및 공공기관 등의 파일링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

4.4.2 외국자료

○ 기본방향

- 도서관은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주한 외국 대사관 등에서 발행/작성된 자료 등에서 발간·제작된 학술연구적 이용가치와 보존가치가 우수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기타 수집방식(수증, 기탁, 교환, 영인제작 등)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개발한다.
- 수증에 의한 수집은 한국인 저자 또는 그 내용이

한국과 관련된 자료,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자료, 그리고 도서관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 국제교환에 의한 수집은 주요 국가도서관과의 자료 교환을 통하여 정부간행물, 학술연구기관 간행물, 외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자료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한 미국, EU, 일본, 중국과 대만의 정부간행물은 중점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연합(UN),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O)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외국자료는 표준분류표(DDC, KDC)의 주류체계를 구성하는 총류에서 역사까지의 모든 주제자료를 수집범주에 포함한다. 다만 주제별 핵심자료는 최대한 수집하고 학제적 및 주변적 자료는 예산, 수집방식, 생산국가, 기술된 언어, 국내 유관기관의 수집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주제별 수집수준은 전체적으로 4단계(연구수준)를 지향하되, 주요 자료유형 및 매체별 수집수준과 주제별 개발수준은 구입예산, 학문영역 및 하위주제에 따라 1~4단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외국자료는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생산한 최신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되, 국가별로는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고 지식정보적 가치가 높은 영미자료, 중국자료, 일본자료, 북한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기타 국가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자료 등의 순으로 수집을 강화한다. 물론 주제별 수집에는 국가별 및 언어별 다양성을 반영한다.
- 도서관은 북미, EU, 중국 및 일본 등 주요출판국가

의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다. 영어 자료의 수집에 중점을 두면서 다른 국가의 자료 중에서 중요하거나 독창적인 것은 원어로 된 자료를 수집한다.

- 중국 및 일본자료는 동북아시아 정책자료 및 인문, 사회, 과학자료 등 모든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수집하며, 특히 사회과학과 문화, 역사류에 중점을 두고 수집한다.
 - 북한자료는 그 형태나 내용수준을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북한의 권력구조, 정치체제, 경제사정, 사회문화, 지리 등과 한국과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주민의 민족성과 삶, 풍습, 가치관 등이 반영된 각국의 도서(역사, 문화, 문학, 언어 등), 대중잡지, DVD(영화, 드라마 등) 등을 구입이나 수증방식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 전자자료는 이용자의 요구강도, 수록정보의 유용성과 통합성,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인쇄본 수집의 불가능성, 구입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원칙으로 삼아 수집한다.
- 자료유형 및 매체별 개발지침
외국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외국자료 개발지침

| 유형 | 개발 지침 |
|---------|--|
| 일반도서 | • 연구집단, 학생, 대중이 외국 사정과 발전을 이해하거나 연구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최신 학술서 및 대중서를 엄선하여 구입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어문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예술과 스포츠, 역사와 지리 등으로 대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인문사회분야에 치중한다. 또한, 도서관현장 및 문헌정보학과 관련된 최신 일반도서를 구입하고 교류협력을 통하여 최대한 수집한다. |
| 참고도서 |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 및 국제기구에서 발행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구입방식 위주로 적극 수집한다. 소장된 참고도서가 개정되었을 때는 반드시 최신판을 확보한다. |
| 연속간행물 | • 외국 연속간행물은 한국과 관련된 자료 및 한국학 자료, 문헌정보학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요 국제기구와 선진국 및 대표적 학회 발간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한다. 외국 잡지는 교양지보다 학술지를, 비영어권 국가의 학술지보다 영어권 국가의 그것을, 이공계보다 인문사회계 학술지를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통계연보는 완전하게 수집한다. 주요 국가의 언론기관이 생산하는 신문은 최대한 구독하고 관련자료도 적극 수집한다. |
| 정부간행물 | • OECD 소속 국가에 북한,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을 추가하여 선택적으로 수집하며, 미국, EU, 일본, 중국, 북한의 정부간행물은 최대한 수집한다. 주요 국가의 정부간행물은 인쇄본 위주로 수집하고 전자형 및 인터넷 파일로 보완한다. 특히 인접국가인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자료, 일본 정부의 독도관련 자료, 그리고 동북아 국가의 전략적 자료는 적극 수집한다. 그러나 외국의 정부간행물 중에서 연방제 국가의 주정부 및 단방제 국가의 광역시도가 생산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
| 주요 회색문헌 | • 주요 대학의 학위논문,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와 연구보고서, 학문영역을 대표하는 학회가 주관한 세미나 자료 등은 선택적으로 수집하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분담수집하거나 공유방안을 강구한다. 외국의 주요 학술단체가 발간한 회색문헌은 연구 가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 활동범위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매우 선별적으로 수집하거나 수용한다. 문헌이 인쇄형과 전자형으로 유통될 경우 인쇄형 수집을 우선하고 전자형도 디지털 아카이브하여 보존자원화한다. |

| 유형 | 개발 지침 |
|-----------|--|
| 지도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료는 구입 또는 수증방식으로 수집하는데, 특히 지명사전은 철저하게 수집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및 웹사이트 링크도 강화한다. 특히 전략적, 지리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도는 인쇄형 원본수집을 우선하되, 영인·복제본을 포함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또, 외국에서 제작된 한국 관련 고지도, 독도 지도, 영토 및 영해와 관련된 일본과 중국 지도, 독도 지도, 북미 지도, 유럽 지도의 순으로 인쇄지도와 전자지도를 동시에 수집한다. |
| 고문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한국에서 발간된 자료로서 외국에 존재하는 고서와 필사본, 한국 관련 내용을 기술한 고서와 회귀서, 수록내용이 한국에 관한 고문서와 고지도, 세계 고전의 원본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한국과 관련된 고문헌을 구입, 수증요청, 영구임대, 영인제본 등의 방식으로 수집하되, 원형수집과 보존에 치중한다. 원본자료는 영인본 위주로, 디지털 버전이 존재할 경우 양자를 함께 수집하며, 외국의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등의 소장자료 중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으로서의 내용적, 형태서지적 가치가 높은 자료의 마이크로 또는 디지털 사본을 지속적으로 수집한다. |
| 어린이청소년 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에서 발간된 한국관련 아동자료,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작가의 아동자료, 외국에서 번역된 한국 아동서, 세계의 그림책과 명작동화, 문학 및 그림책과 관련된 연구자료(학술서, 비평서, 서평지), 각국의 아동문학상 수상작 및 주요 아동작가의 대표작, 주요 국가의 문화·풍습·역사·지리와 관련된 아동자료, 각국의 전설·설화·민화, 주요 학술지와 참고도서 등의 자료를 중점 수집한다. 또한, 각국의 어린이도서관과 자료의 교환과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 대사관 및 문화원과 협의하여 외국의 어린이·청소년자료를 적극 수집한다. |
| 장애인용 대체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에서 발간되거나 제작된 대체자료 중 저작권이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하되, 장애유형별 요구와 선호도, 디지털 정보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태깅 중심의 디지털 자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점자도서, 카세트 테이프 등의 아날로그 자료를 보완적으로 확보한다. 또한, 장애인용 자료서비스가 비교적 충실한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의 국가도서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
| 다문화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자료는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을 감안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한다. |

○ 전자자료 개발지침

외국 전자자료의 개발지침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외국 전자자료 개발지침

| 유형 | 개발 지침 |
|-----------------|---|
| 오프라인(패키지형) 전자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의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인쇄본과 함께 유통될 경우 양자를 각각 수집하되 인쇄본 수집을 우선하며, 오프라인 외국 전자출판물이 네트워크형으로도 존재하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네트워크형을 우선하고, 오프라인 전자출판물이 접근·열람, 복제·다운로드 등의 계약조건 등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네트워크형으로 전환한다. 외국의 패키지형 전자잡지는 수록종수가 포괄적인 것을 선택하고, 소급잡지와 신문은 이용도를 기준으로 선별 구입한다. 전자책은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서지DB(색인초록, 인용)는 학문영역별로 대표적인 패키지, 참고자료는 포괄적 서비스에 유용한 것을 엄선한다. |
| 온라인(네트워크형) 전자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전자자료 외국 자료개발의 핵심영역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한다. 외국의 온라인 전자자료는 접근 및 검색의 신속성과 편의성, 동시 접근자 허용기준, 복제와 다운로드, 원격복사·제공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기준으로 계약·수집하고, 주요 국가의 상업서지, 출판정보, 국가서지, 서지DB, 사실DB, 패키지형 전자잡지 사전, 데이터집, 통계, 편람, 법령집 등을 주요 수집대상으로 한다. |
| 인터넷(웹) 정보자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별 전문지식, 회색문헌, 파일단위의 학술논문, 단편적인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정책문서 등), 기관레포지터리, 디지털 문서관, 상업용 DDS 기관, 학술연구기관·학(협)회·공공기관 등의 웹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특히, 국가명을 도메인으로 하는 사이트, 외국에서 한국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과학, 경제 등과 관련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는 사이트, 한국인이 저술하였거나 한국을 주제로 다룬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되, 한국의 과거 및 현재와 관련되는 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인터넷 사이트와 웹자료를 엄선·수집한다. |

4.5 주제별 집서수준의 지침

4.5.1 기본지침

집서수준(Collecting Levels)은 현재의 장서수준, 미래의 수집의지와 수집목표, 보존의지의 강도와 심도를 종합한 개념으로, 통상 컨스펙터스(Conspectus)에 기초하여 장서의 양적 규모 및 질적 수준을 분석·평가한 후에 기호로 표현한다. 집서수준은 모든 주제장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도서관이 제공하는 실물장서, 상업적 DB, 인터넷 정보자원을 포괄하여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한다. 도서관의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서는 중요한 소급자료 및 최신정보의 수집여부, 국가장서로서의 품격과 내용, 국민의 교양습득 및 학술연구용 지식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기준으로 주제별 집서수준

을 3년마다 검토·평가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4.5.2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도서관은 컨스펙터스를 원용하여 집서수준을 최소수준(Minimal Level), 기본정보수준(Basic Information Level), 학습교육지원수준(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Level), 연구수준(Research Level), 망라적 수준(Comprehensive Level)의 5단계로 구성한다. 집서수준을 적용할 때, 주제별 자료의 포맷 및 특성별 기준은 <표 7>을 근거로 결정한다.

도서관의 중장기 주제(학문)별 집서수준은 KDC의 10개 주류로 구분하여 <표 8>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각 주류의 하위주제 집서수준은 주제별 개발지침에서 상세하게 정한다.

<표 7> 도서관 집서수준의 포맷별 및 특성별 결정기준

| 포맷/특성 | 1(ML) | 2(BIL) | 3(SISL) | 4(RL) | 5(CL) |
|--------|-------------|-----------------|-------------------|----------------|--------------|
| 학술적 수준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학부/석사 | 박사연구 | 전문연구자 |
| 장서의 목적 | 최소 수집: 상대적 | 주제의 개론 및 정의 | 모든 대중의 요구 지원 | 박사과정 및 고급연구 지원 | 망라적 수집 |
| 일반도서 | 매우 제한적 수집 | 제한적 수집 | 광범위한 수집 | 매우 광범위한 수집 | " |
| 전문학술서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선택적 수집 | " | " |
| 일반잡지 | " | 대표잡지의 제한적 수집 | 광범위한 수집 | " | " |
| 전문학술지 | " | 해당없음 | 대표적 학술지 | " | " |
| 참고자료 | 최소 | 제한적 수집: 문헌안내 수준 | 광범위하게 수집 | " | " |
| 전자자원 | 비상업적 자원의 수집 | 상업적 또는 웹 선택적 수집 | 상업적 및 웹자원의 폭넓은 접근 | " | " |
| 사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최소수집 | 매우 광범위한 수집 |
| 언어범주 | 한국어 | 한중일어, 영어 | 한중일어, 영어 등 | 광범위한 수집 | " |
| 보존수준 | 유효수명 후 폐기 | 일부 폐기 및 수선 | 지적 콘텐츠의 보유 및 아카이브 |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 원형포맷의 보유와 보존 |
| 시간비율 | 5% 미만 | 5~10% 미만 | 10~25% 미만 | 25~75% 미만 | 75~100% |

<표 8> 도서관의 주제별 및 매체별 집서수준

| 주 제 | 아날로그 자료 | | 디지털 자료 | |
|------|---------|------|--------|-----|
| | 국내자료 | 외국자료 | 오프라인 | 온라인 |
| 총 류 | 5 | 3 | 3 | 2 |
| 철 학 | 5 | 4 | 3 | 2 |
| 종 교 | 5 | 3 | 3 | 2 |
| 사회과학 | 5 | 4 | 4 | 2 |
| 순수과학 | 4 | 3 | 3 | 2 |
| 기술과학 | 4 | 3 | 3 | 2 |
| 예 술 | 5 | 4 | 4 | 2 |
| 언 어 | 5 | 4 | 4 | 2 |
| 문 학 | 5 | 4 | 4 | 2 |
| 역 사 | 5 | 4 | 4 | 2 |

* 1: 최소수준, 2: 기초정보수준, 3: 학습교육지원수준, 4: 연구수준, 5: 망라적 수준

4.6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 지침

4.6.1 기본지침

도서관은 법정 납본도서관으로서 국가장서를 보존관리할 때 통상적인 보존활동인 계획수립과 정책결정과 적용, 서고환경 및 자료관리, 파오손자료의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재제본, 영인본 제작, 매체변환, 수장공간 확충을 위한 제적·폐기·재배치와 밀집배가 또는 자동 서고시스템 도입·공동보존관 설립 등의 모든 수단을 적용하여 완벽하게 보존·관리한다. 도서관 장서의 제적과 폐기는 수장공간의 확보, 이용자 접근의 개선, 관리비용의 절감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반면, 도서관은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영원히 보존해야 하므로 제적과 폐기가 필요악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이 국가장서 중에서 불가피하게 제적 또는 폐기해야 할 경우에도 실물(원형)보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

4.6.2 자료보존관리지침

국가도서관은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완전하게 보존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형태서지적, 내용적 측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실물(원형)보존, 내용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완벽한 보존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당대와 미래의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일반자료보다 국내외의 고서와 귀중서를 포함한 고문헌, 통시적 희귀서, 고가의 외국 학술자료에 보존관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하여 영인본 또는 대체매체로 제작하며, 외국의 대다수 일반자료는 '1종 1책 보존주의'를 지향한다. 도서관이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인쇄본과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자료와 같이 여러 버전을 동시에 소장하고 있을 때는 인쇄자료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되, 각각의 버전도 가능하면 보존한다.

4.6.3 자료제적 및 폐기지침

도서관은 법정 납본도서관인 동시에 보존도서관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장서를 제적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소장자료 중에서 납본자와 출판사의 제적 및 폐기 요청자료, 화재·전쟁 등의 천재지변으로 망실된 자료, 다량의 복본자료, 기타 관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료에 한하여 폐기할 수 있다. 관리상 또는 이용상의 파오손으로 인하여

제적·폐기해야 할 경우에 반드시 영인복제, 마이크로화, 디지털화, 마이그레이션 등의 방식으로 대체버전을 확보한다. 이와 동시에 대상자료의 원본이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중요하면 원형보존 및 복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장서를 폐기할 때 주관 및 관련부서의 합의를 전제로 각종 위원회(장서개발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4.7 협동장서개발 전략

도서관은 주요 국가도서관(미국의 LC, 영국의 BL, 프랑스의 BnF, 캐나다의 NLC, 호주의 NLA, 일본의 NDJ 등) 및 주요 국가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기관과 자료기증 및 교환업무, 정보교류를 정례화하여 자료교환, 공동이용, 수집정보 공유 등을 강화하고 현재 취약한 이공계 학술연구자료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또, 외국주재 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외국자료를 구입 및 수증 방식으로 수집한다. 방대한 국가장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의 주요 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기록원, 부처별 자료실, 정부출연기관의 정보센터, 주요 대학도서관 등)과 협의체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학술연구자료, 회색문헌, Web DB와 전자잡지,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공동 또는 분담 형태로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고서, 고문서, 고지도, 필사자료, 그림자료, 입체형 실물자료, 도록 등의 특수범주 자료 수집기능을 강화한다.

4.8 장서개발정책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

장서개발정책의 검토와 개정은 자료기획과가 주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서개발위원회의 최종 검토과정을 거친 다음에 관장이 확정한다.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규정한 문서로서 실무수행의 체계성, 일관성, 합리성, 객관성,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가 및 사회환경, 지식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때 실용적인 정책 문서가 될 수 있다. 이에 도서관은 최소 3년을 주기로 장서개발정책의 체제 및 내용을 수정·보완한다.

5. 결 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한국의 지식문화유산인 국가장서를 집중적으로 개발·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법적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여 당대와 후대를 위한 범국가적 지식문화유산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유지하려면 누적성, 역사성, 장기 보존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장서개발을 위한 지침을 요체로 하는 최적의 정책모형을 제안하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은 총 8개 영역(서문, 장서개발의 대상·주체방법, 장서개발의 우선순위와 기본원칙, 장서개발 기본지침, 주제별 집서수준 지침, 보존관리 및 제작·폐기 지침, 협동장서개발 전략, 장서개발정책(CDP)의 관리주체 및 개정주기)으로 구성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모든 직원에게 국가장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국가문헌에 대한 미래의 수집의지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며, 자료수집 및 자료보존관리를 위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신입직원 및 배치전환에 따른 담당직원의 교육훈련 매뉴얼로 활용하는 한편, 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개발계획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정책홍보용 문서이다.

이를 위하여 자료관리부 자료기획과의 주관으로 지상공청회 형식의 의견수렴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여 여론을 추가로 수렴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시 장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주관부서는 내부 직원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된 장서개발정책문서의 최종안을 관장에게 보고하고 공식문서로 확정된 다음에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버전을 동시에 업로드해야 한다.

주요 국가의 국가도서관은 오래 전부터 자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식정보 뿐만 아니라 외국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총체적으로 관리·보존하는 지식문화유산기관 및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국가장서의 체계적 개발과 자료보존관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전문가들의 검토과정을 거치고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수립한 도서관 관련 정책자료가 서랍 속에서 잠자거나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사례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립된 정책모형을 문서화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을 성문화되어 법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국가도서관 중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충실하며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정책문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國立國會圖書館. 2009. 『國立國會圖書館年報』. 東京: 同圖書館.
- 國立國會圖書館. 2009. “國立國會圖書館における文書管理等の現状.”(平成20年 9月 25日) [cited 2010.12.1].
[〈http://www.cas.go.jp/jp/seisaku/koubun/dai11/siryou5.pdf〉](http://www.cas.go.jp/jp/seisaku/koubun/dai11/siryou5.pdf).
- 國立國會圖書館. 資料收集方針書. [cited 2010.12.1].
[〈http://www.ndl.go.jp/jp/aboutus/pdf/housin2009.pdf〉](http://www.ndl.go.jp/jp/aboutus/pdf/housin2009.pdf).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8. 『어린이도서관 기초 장서개발 연구』. 서울: 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기증자료 수집사업계획서(2009. 12)(미간행 유인물).
-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디지털자원(OASIS) 선정지침.” [cited 2010.12.1].
[〈http://www.oasis.go.kr/intro/intro_selguide.jsp?&nocache=1272892362098〉](http://www.oasis.go.kr/intro/intro_selguide.jsp?&nocache=1272892362098).
- 국립중앙도서관. 외국도서 구입사업계획서(2009. 12)(미간행 유인물).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고문헌수집(2010. 4. 7)(미간행 유인물).
- 국립중앙도서관 주제정보과, 정책자료과. 다문화자료 수집(내부자료).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동위원회.

- 서태설, 장덕현. 2008. 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포맷 선정 전략 연구. 『정보관리연구』, 39(3): 1-21.
-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 윤희윤. 2007. 『장서관리론, 개정판』. 대구: 태일사.
- 윤희윤. 2010. 주요 국가의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정책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1): 29-49.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윤희윤 등. 2010. 『과학기술 정보자료 보존관리: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서울: KISTI.
- 윤희윤 등. 2008. 『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란주. 2005. 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03-224.
- 林巧敏. 2008. 『國家圖書館電子資源館藏發展之研究』. 博士論文, 國立臺灣大學文學院 圖書資訊學系.
- 林巧敏. 2007. 澳洲國家圖書館數位館藏發展概述. 國家圖書館館刊, 九十六年 第1期, 169-197.
- 장덕현, 서태설. 2009.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97-117.
-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투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 장혜란 외. 2009.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 British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
- British Library. 2009. Thirty-sixth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08/09. London: The Stationery Office.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cited 2010.12.1].
 <http://www.lib.cam.ac.uk/CDP2008_9.pdf>.
- Graham Shaw. 2008. "The British Library's Collection and Collecting Policy." [cited 2010.12.1].
 <<http://www.cilip.org.uk/groups/fil/conferences/pastevents/blcollectionpolicy.pdf>>.
- IFLA Section on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cited 2010.12.1].
 <www.ifla.org/VII/s14/nd1/gcdp-e.pdf>.
- ISO. ISO 1179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Document Storage Requirements for Archive and Library Materials. [cited 2010.12.1].
 <<http://www.ala.or.cr/mexico/Normas%20internacionales/ISO-11799.pdf>>.
- Library and Archives Canada, Documentary Heritage Collection Sector. "Digit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www.collectionscanada.gc.ca/collection/003-200-e.html>>.
- Library of Congress. 2009. Fiscal 2009 Budget Justification. Washington, D.C.: LC.
-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Development and Policies." [cited 2010.12.1].
 <<http://www.loc.gov/acq/coldev/handbook.html>>.
- Library of Congress, Acquisitions and Bibliographic Access Directorate. Report of Fiscal Year 2008 [cited 2010.12.1].
 <<http://www.loc.gov/catdir/cps0/aba08.pdf>>.
- Library of Congress. 2009. Annual Report of the Librarian of Congress. Washington, D.C.: LC.
-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Research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ited 2010.12.1].
 <<http://nga.gov.au/Research/pdf/CollectionPolicy.pdf>>.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Annual Report. Canberra: NLA, 2009.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anberra: NLA, 2008. [cited 2010.12.1].
 <<http://www.nla.gov.au/policy/cdp/CDP.pdf>>.
- National Library of Irelan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2009-2011." [cited 2010.12.1].
 <www.nli.ie/GetAttachment.aspx?id=2a50d572-3d3f-4ebe-84ef...>.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ollection Development Manual of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ited 2010.12.1].
 <www.nlm.nih.gov/tsd/acquisitions/cdm/CDMBook.pdf>.
- WLN Conspectus Technical Report. [cited 2010.12.1].
 <<http://www.umflint.edu/library/conspectus/techReport.htm>>.